

네 팔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나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7절)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힌두교를 국교로 삼아 인구의 10배가 넘는 우상을 섬기며 국민 절반이 빈곤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난한 나라 네팔은 사마리아 여인을 닮았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근본적인 갈급함으로 허덕인 자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말을 전네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여인은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네팔에 이백여 개가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종족에게도 같은 수식어가 붙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따망인으로 살겠지만 “예수를 만난 따망인”
여전히 구릉인으로 살겠지만 “예수를 만난 구릉인”
여전히 림부인으로 살겠지만 “예수를 만난 림부인”
여전히 달릿트로 살겠지만 “예수를 만난 달릿트인”

.....

네팔의 겨울 사역은 기쁨의 나눔과 섬김,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러수와

티벳에 뿌리를 둔 따망민족이 주께 돌아와 복음으로 잘 세워지고, 중국 티벳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따망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러수와에 가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왕복 13시간이 넘는 먼 거리지만 가족 모두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사역이었습니다.





잠은 교회 안에서 텐트치고~
지붕 처마가 다 뚫려있어 겨울
찬공기가 매서웠지만,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그마저도 즐거웠던^^



뿔속까지 티벳불교를
믿는 따망 아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발라주 교회 & 박터플 교회

카트만두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네팔 현지교회 아이들에게 간식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들 처음 보는 과자들이라 신기해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죠?

네팔의 다음세대를 향해

네팔교회에는 아이들을 위한 예배,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있는 THN 선생님들과 함께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차원이 아닌 교사들이 깊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연구하고 가르치며, 다양한 **교구** 만들기 방법을 알려주어 아이들이 즐겁게 말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nandaban 한센병원

일명 문둥병이라 불리던 한센병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질환이나, 네팔은 한센병 우선순위 23개국(WHO) 중 하나입니다.



한센병은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심각하고 총체적인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특히 네팔에는 한센병에 걸린 여성들은 자동으로 이혼을 당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정으로부터도 단절됨으로써 오는 외로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한센병에 걸리면 몸 안에 있는 균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는 점점 변형되고 손가락과 발가락 말단 부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치료하면 나균이 제거되어 전염력은 거의 없습니다.



THN선생님께서 Anandaban 한센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아내선생님으로부터 한센병에 걸린 여성들에 대한 사정들을 듣게되면서 일주일에 한번 병원에 가서 함께 돕고 있습니다.

한센병으로 몸도 마음도 무너진 여성들이지만 몽그러진 손가락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흘러가길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방문 때에는 13살에 한센병에 걸려서 입원한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함께 갔던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손내 밀어 기도할 때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시던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지금은 함께 울지만 후에 복음의 소식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네팔의 약자, 여성을 위해

네팔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산골에 가면 여전히 조혼제도로 12살에 이미 아이가 있는 소녀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믿는 여성들조차 상당수가 차별과 놀림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깊은 위로를 받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딸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믿음의 여인들로 세워지도록 도와려고 합니다.

그 첫 스텝으로 1월부터 ‘재대신 화관을’ 책자로 모임을 하면서 먼저 저희가 이 책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고, 각자 섬기는 현지교회 여성들을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기도제목

비자문제

그동안 부부 중 한명이 대학교 비정규과정에 다니면서 가족 모두 동반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갑자기 학생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학생비자로 가족 모두 비자를 받으려면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 사람에게 블랙머니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는 그마저도 가능해서 계속 네팔에서 사역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 하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비즈니스를 오픈했던 분과 연결되어 법적으로 3천만원(변호사 비용포함)으로 비즈니스를 인수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적은 재정이 아니고 시작하게 된다면 가게를 구하고 리모델링부터 초기셋팅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좋은 기회인 이유는 지금은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려면 투자금액만 2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비자는 머무는데 한계가 있어서 결국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게 좋다고 말씀하시

지만 시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학생비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구요.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자를 위해 두 분이 현금을 보내주셔서 비즈니스 인수를 위한 금액의 1/3이 채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인들이 있어 변호사를 만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즈니스 비자를 위한 서류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 2년 전부터 사역자로 세울 네팔 청년들에게 말씀과 예배를 가르치고 함께 카페(음식)와 게스트 하우스를 하면서 공동체로 훈련하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 시작의 문으로 열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스텝을 잘 따라가며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황

작년 11월 저희 가족이 네팔에 나올때 갑자기 파송교회에서 더 이상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너무 당황하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기도했을 때 주신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네팔에 예정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마음써주시는 교회들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소식 전합니다.